

IBK 2007. 11 금융경제브리프

| 동향분석 |

- I. 해외경제 동향 II. 국내경제 동향
- III. 중소기업 동향 IV. 금융시장 동향

| 이슈분석 |

2008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 경제지표 |

【동향분석】

[요 약]	2
Ⅰ. 해외경제 동향	5
Ⅱ. 국내경제 동향	10
Ⅲ. 중소기업 동향	14
Ⅳ. 금융시장 동향	17

【이슈분석】

2008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21
--------------------	----

【경제지표】

주요 경제지표	30
---------	----

| 동 | 향 | 분 | 석 |

| 요약 |

I. 해외경제 동향

- 금융시장 불안 및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과 유럽 등 미국과 금융 연관 정도가 높은 주요국의 정책금리는 당분간 현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
 - 미국경제는 9월 고용지표의 상향조정, 소비판매 증가 등으로 소비수요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나 주택경기 침체는 지속
 - 중국경제는 무역수지 흑자 증가에 따른 사상 최대의 외환보유고 등으로 유동성이 급증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올해 들어 여덟 번째 지급준비율 인상에 이어 추가 금리인상 등의 긴축정책 지속 전망
 - 일본과 유로경제는 금융시장 불안 우려로 당분간 금리동결 분위기 지속
- 국제유가(Dubai油 기준)는 허리케인 시즌 마감, OPEC의 증산 등으로 수급 여건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계절적 수요 증가 및 지정학적 변수로 인한 공급차질, 달러화 약세 영향으로 배럴당 75달러 수준의 고유가 지속 전망
- 최근 급등세를 보인 구리 가격은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수요감소와 생산업체의 가격 인하 발표 영향으로 톤당 7천 5백 달러 수준에서 거래될 전망
- 미국금리(국채 10년)는 경제지표와 유가의 향방에 따라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변화하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
 - 일본금리(국채 10년)는 신용경색 우려 완화 및 주가 상승에 따라 상승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미국경제의 침체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하락
- 글로벌 증시는 연준의 금리인하 후 급등락을 반복하여 변동성 확대
 - 미국 다우존스지수는 신용경색 위기의 진정과 고용지표 개선으로 연고점을 경신해 급등세를 보인 후 최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
 - 일본 니케이지수는 글로벌 증시급등의 영향 속에 금융주 약세와 일부 경제지표 악화, 수상 퇴임 후 정국 불안정 등으로 약한 상승세를 보인 후 최근 하락
 -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글로벌 증시 급등 및 경제성장 전망의 상향조정 등으로 급등세를 이어갔으며, 인도 센섹스지수는 국제자금 유입으로 폭등

II. 국내경제 동향

- 서비스업생산의 증가세 확대와 산업생산의 회복세 등 투자를 제외한 전반적인 경기지표는 양호
 - 8월 소비재판매증가율은 전월보다 소폭 둔화되었으나, 전월 실적이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 개선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8월 설비투자는 반도체 및 IT 부문의 투자가 일단락되면서 부진(1.7%)을 지속하고 있으며, 건설기성도 민간주택건설의 부진과 공공부문 발주 감소로 부진(5.5%) 지속
 - 9월 수출은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부진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15.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호조세를 지속
 - 지난해 하반기 이후 빠르게 둔화되었던 반도체 및 IT 부문의 생산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며 전체 산업생산의 회복을 주도
 - '05년 이후 5% 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하던 서비스업생산은 최근 들어 7~8%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점진적 회복 양상

III. 중소기업 동향

- 중소기업 경기는 완만한 생산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설비투자 등은 둔화 조짐
 - 8월 중소기업 생산은 자동차·트레일러 등의 생산호조에 힘입어 2.8% 증가하여 전월(2.7%)과 비슷한 수준
 - 8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실시업체 비율(16.6%)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전년동월대비로는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어 하반기들어와 다소 둔화 양상
 -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금사정 곤란업체 비율은 지난 3월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어 8월에는 39.3%를 기록

IV. 금융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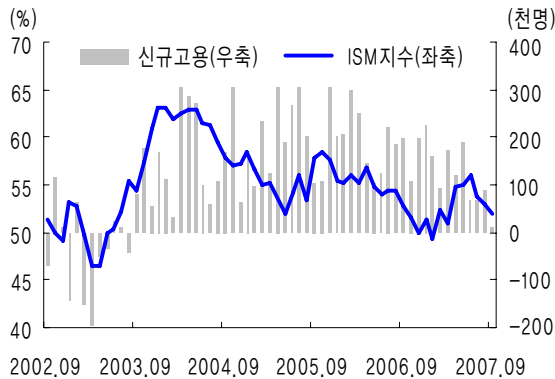
- 금리(국고채 3년)는 기술적 매수세, 수급여건 개선기대 등으로 잠시 하락했으나, 주가 급등의 영향으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해 상승
 - 금리는 경기호조와 시중 유동성 증가에 따른 한은의 긴축기조, 취약한 채권 매수세와 단기금리의 상승압력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증시의 상승세 약화, 미국 경제의 우려로 5.4~5.5%대의 약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
-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금리인하 후 달러화 약세로 913원대까지 하락했으나, 당국의 개입과 미증시 급등에 따른 달러화 강세 등으로 상승
 - 원/달러 환율은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며 913~918원대의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전망
 - 원/엔 환율은 엔화가 114~116엔대의 강세를 보임에 따라 790~800원대로 소폭 상승할 전망
- 주가(KOSPI)는 글로벌 증시 급등, 국내 경제지표 호조 등에 따라 2,000선을 상회하는 급등세를 보인 후 최근 하락
 - 주가는 상승 모멘텀은 유지하겠지만, 미국경제 침체 우려로 2,000선 주위의 등락을 보인 후, 월말 FOMC를 전후해 다시 상승 기회를 모색할 가능성
- 9월 중 은행 수신은 증가폭이 확대(8월 4.3조원 → 9월 6.5조원)된 반면, 자산운용사 수신은 증가폭이 축소(8월 4.0조원 → 9월 3.3조원)
 - 은행 수신은 정기예금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수시입출식예금(요구불예금 포함)이 대폭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증가폭 확대
- 9월 중 중소기업대출은 추석자금 수요, 은행의 적극적 대출 취급 등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크게 둔화
 - 중소기업대출 증가폭 : 8월 3.9조원 → 9월 7.8조원
 - 가계대출 증가폭 : 8월 3.4조원 → 9월 0.9조원

I. 해외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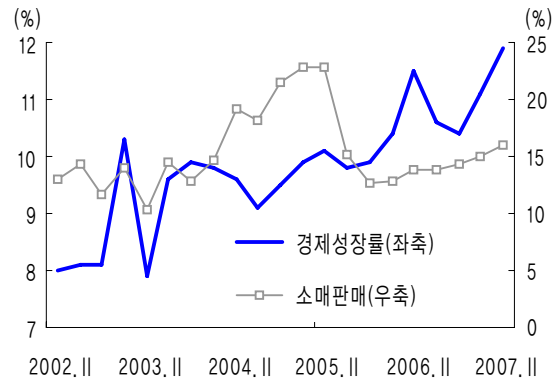
세계경제 금융시장 불안 및 경기 둔화 우려 지속

- 금융시장 불안 및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과 유럽 등 미국과 금융 연관 정도가 높은 주요국의 정책금리는 당분간 현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
 -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유효하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로 촉발된 신용경색 우려로 세계 주요국의 금리는 당분간 동결 분위기
- 미국경제는 9월 고용지표의 상향조정, 소비판매 증가 등으로 소비수요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나 주택경기 침체는 지속
 - 공교육 및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로 9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였고, 9월 소비판매 증가 등 소비수요가 견조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ISM 제조업지수 및 비제조업지수가 모두 하락하였고 9월 주택착공건수는 14년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는 여전
 - 9월 소비자물가 상승, 달러화 약세, 유가상승 등 인플레이션 압력은 유효하지만,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로 연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존재
- 중국경제는 9월 무역수지 흑자 증가에 따른 사상 최대의 외환보유고 등 대외 유동성이 급증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올해 들어 여덟 번째 지급준비율 인상에 이어 추가 금리인상 등의 긴축 정책을 강화할 전망
 - 최근 중국 인민은행은 올해 들어 여덟 번째로 지급준비율을 인상(12.5%→13%)하였으나,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추가 금리인상 등의 긴축 조치 시행 가능성
 - 소비, 수출, 투자 등 경제 전반에서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어, 중국 인민은행은 올해 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11.6%, 4.6%로 상향 조정하는 등 고성장기 지속될 것으로 전망
 - 9월 무역수지 흑자폭은 전년동월대비 56% 급등한 239억 달러로 확대되었고, 3/4분기 외환보유액은 1조 4,34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여 위안화 절상 압력 가속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와 신규고용 추이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소매판매증가율 추이



주 : 좌측 그래프 ISM제조업지수는 50이상은 확장국면을, 이하는 수축국면을 의미, 우측 그래프는 전년동월대비

□ 일본과 유로경제는 금융시장 불안 우려로 당분간 금리동결 분위기 지속

- 일본경제는 주택지표 및 가계 체감경기 악화로 소비 심리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8개월 연속 기준금리(0.5%)를 동결하였으며, 소비 위축과 엔화 강세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감소
- 유로경제는 민간소비 호조, 산업생산 증가 등 거시경제지표 호조로 경기 둔화 우려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금융시장 불안으로 당분간 정책금리 동결 분위기가 지속될 전망
 - 영란은행은 Northern Rock 부실 사태로 기준금리(5.75%)를 동결했으며 유럽중앙은행도 유로화 강세 및 금융시장 불안으로 기준금리(4.0%)를 동결

유가 수급불안으로 75달러 수준의 고유가 전망

- 국제유가(Dubai油 기준)는 미국 원유재고 증가, 허리케인 우려 완화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다가, 터키와 이라크 북부 쿠르드 반군간의 긴장감 고조 소식에 공급 차질 우려가 확산되어 사상 최고치(배럴당 79달러)를 경신하며 상승
 - OPEC의 증산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원유재고 감소, 지정학적 위험 고조에 따른 수급 불안 우려가 지속
- 향후 유가는 허리케인 시즌 마감, OPEC의 증산 등으로 수급여건이 일부 개선되겠지만, 계절적 수요 증가 및 지정학적 변수로 인한 공급차질 우려, 달러화 약세 영향으로 배럴당 75달러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

■ 국제유가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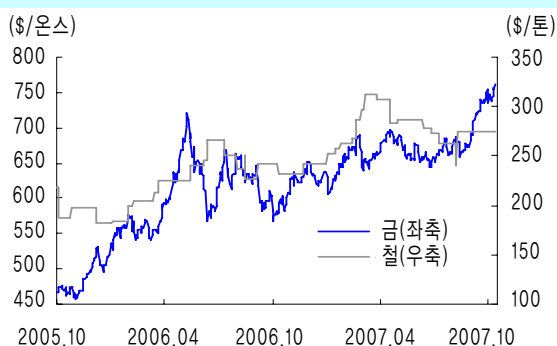
		2005년	2006년	2007년			2007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8월	9월	10월*
유가	WTI(\$/bbl)	56.5	66.1	58.1	64.9	75.3	74.0	72.4	79.6	84.3
	Brent(\$/bbl)	54.3	65.4	58.1	68.6	75.1	77.2	70.8	77.2	81.2
	Dubai(\$/bbl)	49.4	61.4	55.6	64.7	70.0	69.5	67.2	73.5	75.7

* 10월은 2007.10.1~10.24일까지 평균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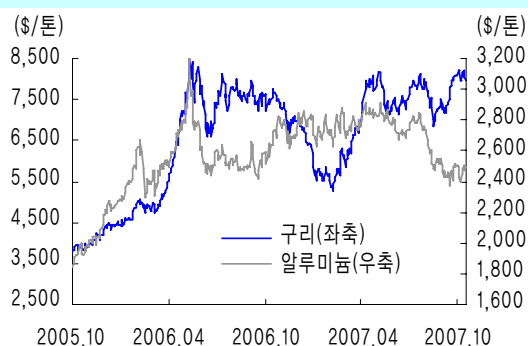
원자재 가격 구리가격은 연중 최고치 기록 후 하락, 알루미늄가격은 상승

- 구리가격은 남미의 대형 광산 파업에 따른 공급차질 우려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다 하락하였으며, 알루미늄 가격은 상승
 - 구리 가격은 남미지역 주요 광산의 파업, 칠레의 수출 감소 등으로 공급불안 우려가 고조되어 톤당 8천 달러 내외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다,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 및 재고증가로 하락세로 전환
 - 알루미늄 가격은 북미지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고량 증가로 약세를 지속하다가 남아공 제련소 정전소식 등으로 공급차질 우려가 확산되며 반등
- 향후 구리 가격은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생산업체의 가격 인하 발표 영향으로 톤당 7천 5백 달러 수준에서 거래될 전망
- 달러화 약세에 따른 투자 수요 유입으로 금 가격(10월 24일)은 27년래 최고치를 경신하여 온스당 765.6달러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 지속
 - 금 가격은 달러화 약세, 안전 자산으로서 투자수요의 지속적 유입,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당분간 상승세 지속 전망

금 및 철강 가격 추이



비철금속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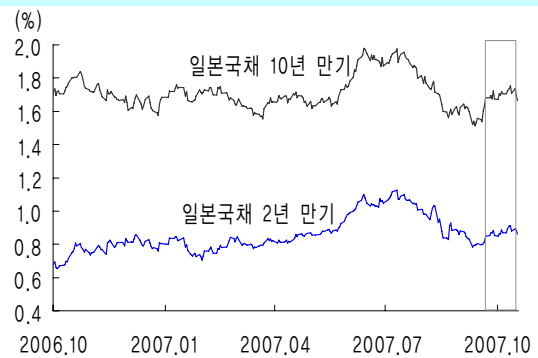
국제금리 박스권내 등락 예상

- 미국금리(국채 10년)는 경제지표와 유가의 향방에 따라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면서 상승세와 하락세를 반복
 - 미국금리는 경제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4.6~4.7%대에서 등락할 전망
- 일본금리(국채 10년)는 신용경색 우려 완화 및 주가 상승에 따라 상승세를 보였으나, 최근 주가 하락과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로 하락
 - 일본금리는 미국금리에 동조해 1.6~1.8%대에서 등락할 전망

미국의 국채금리 추이



일본의 국채금리 추이



국제 주식시장 달러화 유동성 공급에 따라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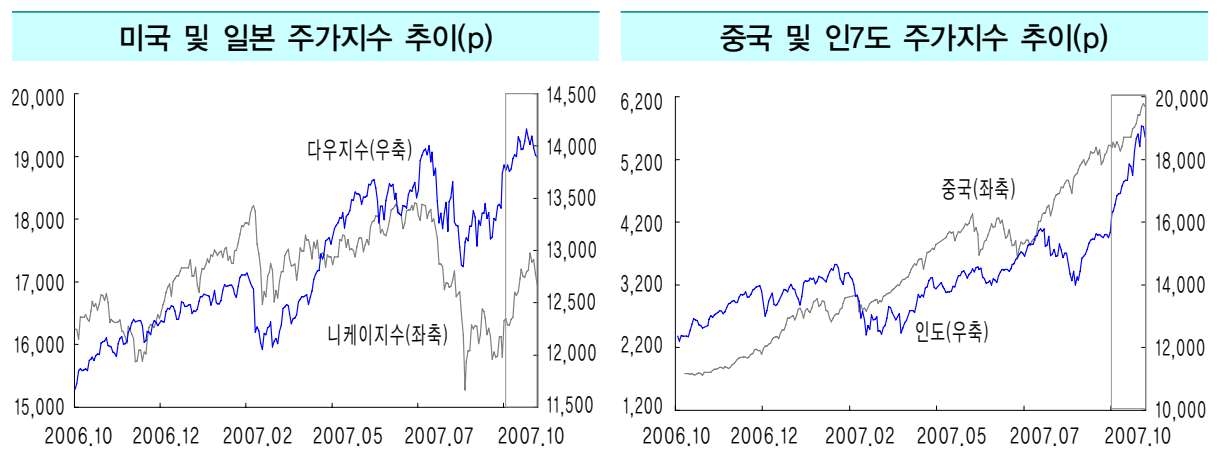
- 미국 다우존스지수는 연준의 예상외 큰 폭의 금리인하와 재할인을 인하(각각 50bp) 이후 급등했으나 최근 다시 하락
 - 신용경색 위기 진정과 고용지표의 큰 폭 개선으로 주가가 연고점을 상회하며 급등했으나, 기업실적 악화와 유가급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다시 부각되며 하락
- 일본 니케이지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관계된 금융주의 약세와 일부 경제지표의 악화, 수상 퇴임 후 정국 불안정 등으로 약한 상승세를 보인 후 최근 하락
 - 일본 선행지수의 하락세와 5개월 연속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는 경기상황판단지수 등이 향후 일본 경제 및 소비지출에 대한 우려 제기

□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급등세 지속

- 지급준비율 인상이 있었으나 추가 긴축조치 및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제성장 전망의 상향 조정과 경기 호조세 속에 주가는 사상 최초로 6,000선 돌파

□ 인도 센섹스지수는 폭등세

- 글로벌 증시 급등에 따른 대규모의 국제자금 유입과 저임금 노동시장에 기반한 인도 경제의 장기 성장 전망 부각에 따라 주가는 9월 17일 이후 10월 15일까지 23% 폭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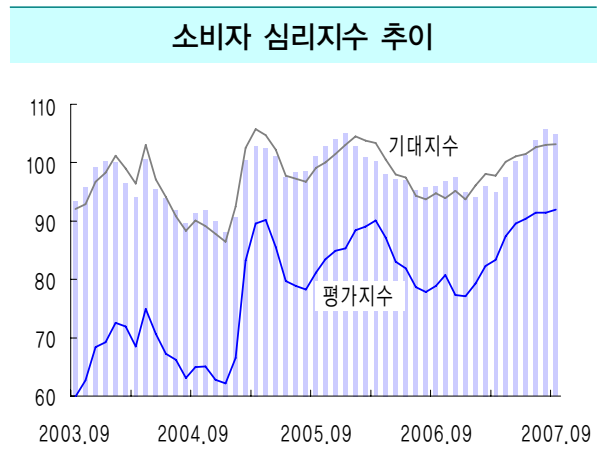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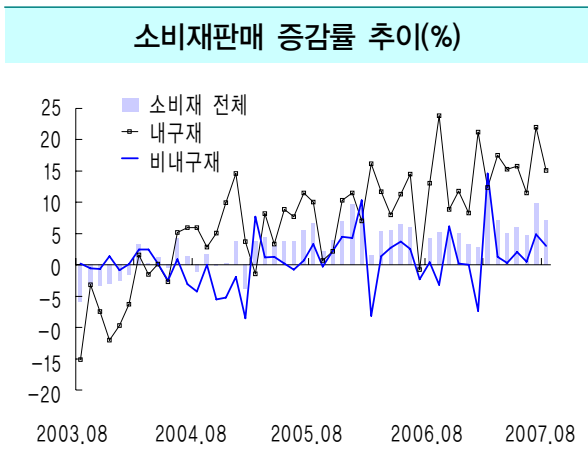


주 : 미국 Dow Jones 30 Industrials, 일본 Nikkei 225, 중국 Shanghai Composite, 인도 Sensex 30

Ⅱ. 국내경제 동향

소비 안정적인 증가세 지속

- 8월 소비재판매는 전년동월대비 7.1% 증가하여 전월(9.8%)에 비해 둔화되었으나,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 전월(7월) 소비재판매의 급증은 전년동월의 일시적 위축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에, 8월 소비지표는 기존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8월 내구재판매 증가율이 전월의 22.0%에서 15.1%로 둔화되었으며, 계절조정 전월대비로도 0.2% 감소하였음을 감안할 때, 소비 회복세는 완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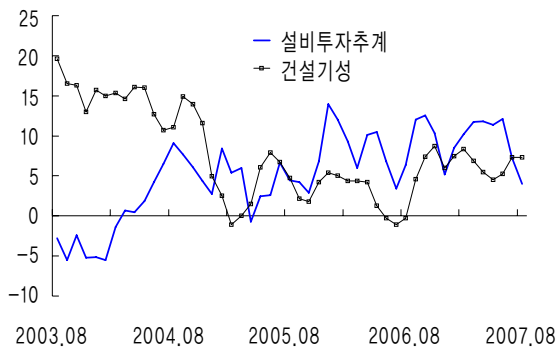
주 : 우측 그림의 막대그래프는 계절조정기대지수

- 9월 소비자기대지수는 103.2로 6개월 연속으로 기준치인 100을 상회하였으며, 소비자평가지수는 92.0으로 8개월째 상승하는 등 소비자심리 개선 추세는 지속
 - 기대심리의 개선을 소득계층별로 보면, 월소득 100만원대를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전월에 비해 같거나 상승했으며, 연령대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기준치 100을 상회한 가운데 40대 계층에서만 전월보다 소폭 하락
 - 평가지수의 경우 경기에 대한 판단은 90.4에서 91.8로 개선된 반면, 생활형편에 대한 판단은 92.4에서 92.1로 전월보다 소폭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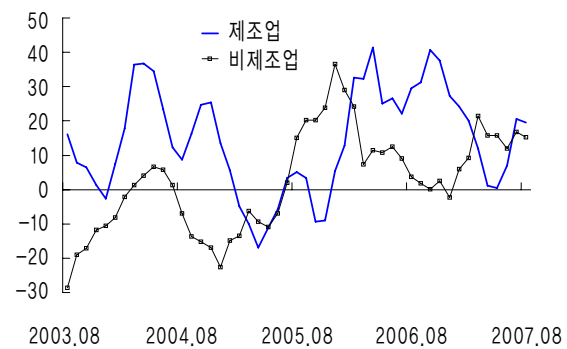
투자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모두 비교적 부진

- 8월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7% 증가하여 전월의 1.0% 증가에 이어 낮은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
 - 8월 설비투자는 운수장비 투자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특수산업용기계(반도체장비)의 투자 감소와 ATM 교체투자가 둔화되면서 부진한 양상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은 전력업과 공공운수업 등 공공발주가 크게 감소(-21.3%)하고, 민간발주의 증가세가 둔화(8.1%)되어 전년동월대비 4.7% 증가하는 등 전월보다 둔화
 - 8월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기계수주액 증가율은 모두 전월보다 둔화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



산업별 기계수주액 증가율 추이(%)



주 : 설비투자와 건설기성, 기계수주액 증가율 모두 3개월 이동평균임.

- 8월 건설기성은 5.5% 증가하여 전월(12.3%)보다 둔화되는 등 부진
 - 8월 건설기성액은 공공부문 감소, 민간부문의 증가폭 둔화로 전월보다 둔화
 -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은 주택건설이 전월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하는 등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전월의 감소(-14.9%)에서 증가(13.4%)로 반전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며 경기상승을 주도

- 9월 수출은 추석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외견상 부진했으나, 일평균 수출액은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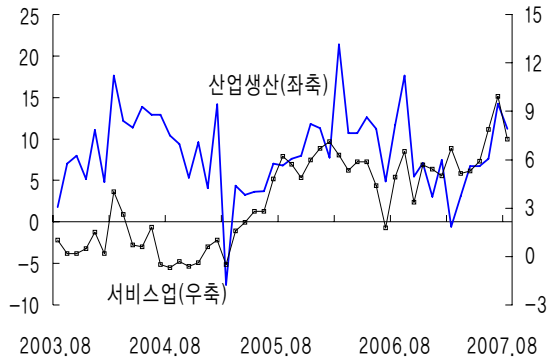
- 9월 수출은 추석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0.4% 감소
- 그러나 9월 일평균 수출액은 15.2억 달러로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어 실제 수출흐름은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판단
 - 일평균 수출액(억달러) : ('07.1/4)12.5 → (4월)13.0 → (5월)13.2 → (6월)14.2 → (7월)13.2 → (8월)13.0 → (9월)15.2
- 품목별로 보면, 선박·철강·석유화학 등이 두자리 수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일반기계, LCD,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등은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 등으로 한자리 수 증가율 또는 감소세로 전환
 - 품목별 수출증가율(%) : (선박)49.7, (철강)18.4, (석유화학)11.5, (일반기계)7.1, (LCD)5.0, (반도체) Δ 1.6, (무선통신기기) Δ 2.2, (자동차) Δ 19.1
- 지역별로는 對중동(53.0%), 對ASEAN(49.1%), 對中(21.7%)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시현하였으나, 對日(2.3%), 對美(Δ 0.3%) 수출은 엔화약세, 미 경기하락 등의 영향으로 약세

전반적 경기 산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의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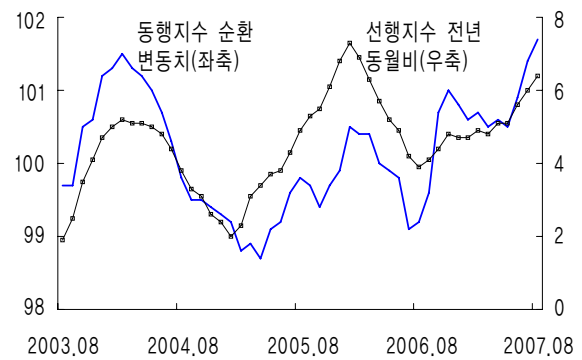
- 8월 산업생산의 증가세는 전월보다 소폭 둔화되었으나, IT 부문의 생산호조에 힘입어 회복기조 자체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8월 산업생산은 반도체 및 IT 부문의 회복세(21.6%)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1.2% 증가
 - 8월 산업생산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전월의 14.3%보다 소폭 둔화되었으며,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산업생산도 전월(11.9%)보다 낮은 9.4%를 기록하였으나, 전월 실적에는 전년동월의 부진에 따른 일시적 호조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에 산업생산의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서비스업생산은 기존의 회복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8월 서비스업의 증가세는 전월(9.9%)보다 소폭 둔화된 7.3%를 기록하였으나, 전월의 경우 전년동월의 집중호우와 파업 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일시적으로 증가율이 급등했었기 때문에 8월에도 서비스업 회복세는 지속된 것으로 판단

-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금융보험업(19.4%)은 호조세를 이어간 반면, 전통적 서비스업인 도소매업(4.1%), 음식숙박업(2.7%) 등은 비교적 부진

산업생산과 서비스업 증가율 추이(%)



경기동행지수 및 경기선행지수 추이



□ 8월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모두 전월보다 개선되는 등 경기상승기조 지속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8월 산업생산과 서비스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구성지표들이 개선되면서 전월보다 0.3p 상승하는 등 3개월 연속 상승세
- 8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재고순환지표와 기계수주액 등 3개 지표가 감소하였으나, 소비자기대지수, 건설수주액, 주가지수 등 6개 지표가 증가하여 전월대비 0.4%p 상승
- 최근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3개월 연속, 선행지수(전년동월비)는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있음을 재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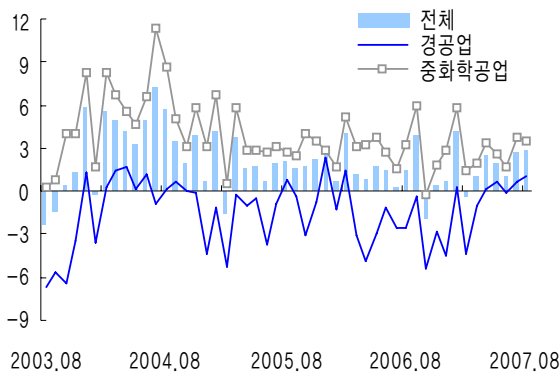
Ⅲ. 중소기업 동향

완만한 생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설비투자는 둔화 조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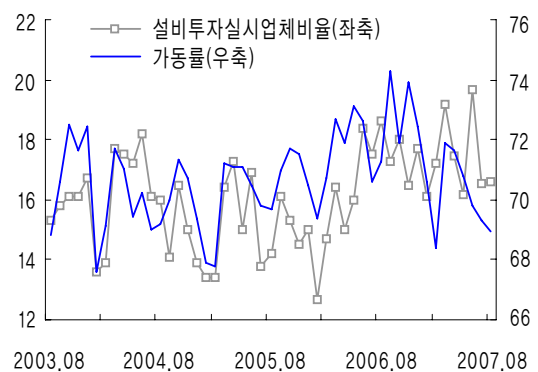
□ 8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2.8% 증가하여 전월(2.7%)과 비슷한 수준

- 8월 생산증가는 자동차·트레일러(17.2%), 기타 운송장비(9.5%), 기계·장비(8.1%) 업종 등의 호조에 기인
- 수출호조 및 전년동월 파업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자동차 산업의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생산증가를 주도
- 중화학공업 생산은 전월(3.7%) 수준인 3.5%의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경공업 생산은 전월(0.6%)보다 소폭 확대된 1.0% 증가

산업별 중소제조업 생산증가율 추이(%)



중소제조업의 설비투자 및 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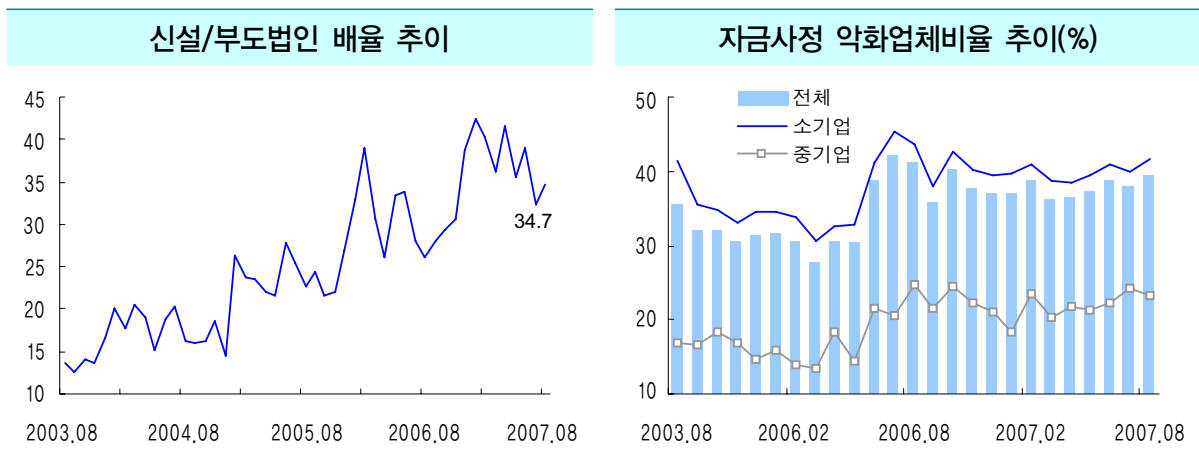


□ 8월 중소제조업의 평균적인 설비가동률은 68.9%를 기록하여 전월(69.3%)보다 소폭 하락하였는데, 지난 3월 이후 점차 하락하고 있는 모습

□ 중소제조업의 설비투자 활동은 점차 둔화되는 조짐

- 8월 설비투자 실시업체 비율은 16.6%로 전월과 동일했지만, 전년동월(18.6%)에 비해서는 하락하여 2005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2개월 연속 하락
- 8월 신설법인수의 전월대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도법인수의 감소 덕분에 신설/부도법인 비율이 상승했는데, 창업활동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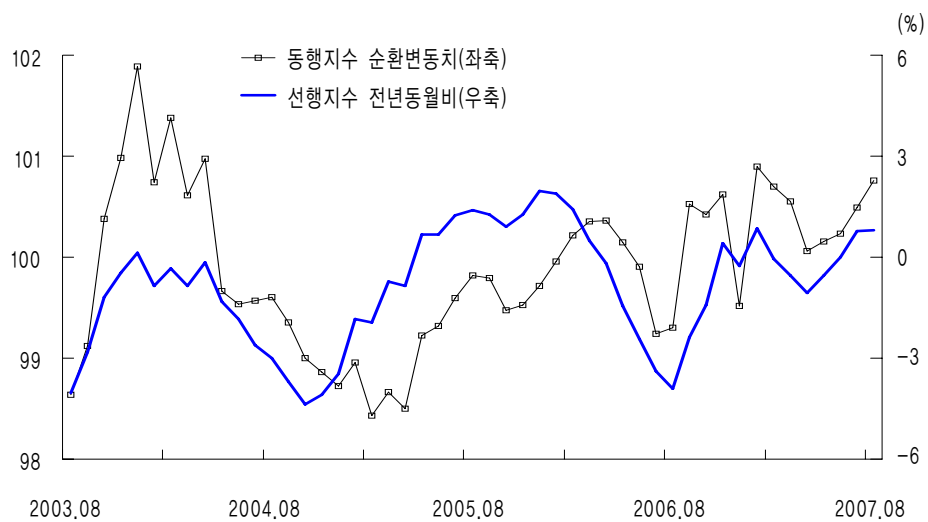
- 8월 신설법인수는 전월대비 298개 감소한 4,298개, 부도법인수는 18개 감소한 124개로 나타나 신설/부도법인 비율은 전월(32.4)보다 상승한 34.7을 기록
- 그러나 8월 신설/부도법인 비율의 전월대비 상승은 부도법인수 감소의 영향이며, 신설법인수의 전월대비 감소분은 7월보다 오히려 확대되었기 때문에 8월 지표상승을 창업활동의 개선 조짐으로 평가하는 것은 성급
- 7~8월 평균 신설/부도법인 비율(33.5)이 금년 상반기(39.2)에 비해 크게 하락하고 있어, 하반기 창업환경은 상반기보다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 8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전월보다 소폭 악화되면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
 - 8월 자금사정 양호업체 비율은 전월(5.5%)보다 조금 상승(6.0%)했으나 곤란업체 비율도 전월(38.0%)보다 상승(39.3%)하여 전체 자금사정은 소폭 악화
 -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곤란업체 비율이 지난 3월(36.3%)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자금사정은 다소 어려워지는 모습
- 중소기업의 경기동행지수와 경기선행지수는 올해 들어 미미한 등락을 거듭하여 왔는데, 최근에는 완만한 상승기조를 유지
 - 현재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중소기업의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생산과 수출, 서비스업 등의 구성지표들이 개선되면서 전월(100.5)보다 소폭 상승한 100.8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상승

- 경기흐름을 예고하는 중소기업 경기선행지수(전년동월비)는 BSI와 주가지수, 채산성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재고순환지표와 교역조건 등이 악화되면서 전월대비 보합인 0.8%를 기록
-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모두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속도가 매우 완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소기업경기의 회복세도 점진적인 것으로 판단

중소기업 경기종합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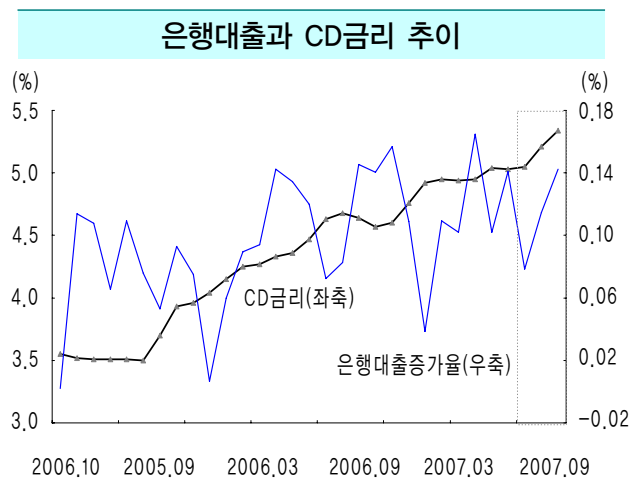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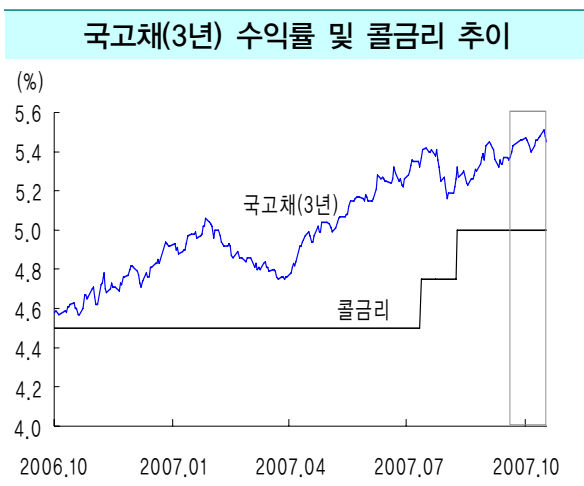
자료 : 기업은행 기본경제연구소

주 : 동행지수는 산업생산, 가동률, 수출, 출하, 서비스업 등의 5개 지표, 선행지수는 재고순환선, BSI, 주가, 교역조건, 신설법인수, 채산성 등의 6개 지표를 이용

IV. 금융시장 동향

금리 완만한 상승세 전망

- 금리(국고채 3년)는 기술적 매수세, 채권 수급여건의 개선 기대 등으로 잠시 하락했으나, 증시 급등의 영향으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15일 5.51%)
 - 글로벌 증시 급등에 따라 주식시장(특히 해외펀드)으로의 자금 이동이 이어짐에 따라 채권 매수기반이 취약해진 것이 금리 상승의 주요인
- 금리는 한은의 긴축기조와 취약한 채권 매수세 등으로 단기금리의 상승압력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증시의 상승세 약화, 미국경제 침체우려 등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5.4~5.5% 범위에서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
 - 자금이동의 흐름이 크게 바뀌지 않는 가운데 최근 높은 금리의 회사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어 국채 매수세가 개선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
 - 또한 은행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은행권 자금조달로 인한 단기금리의 상승압력도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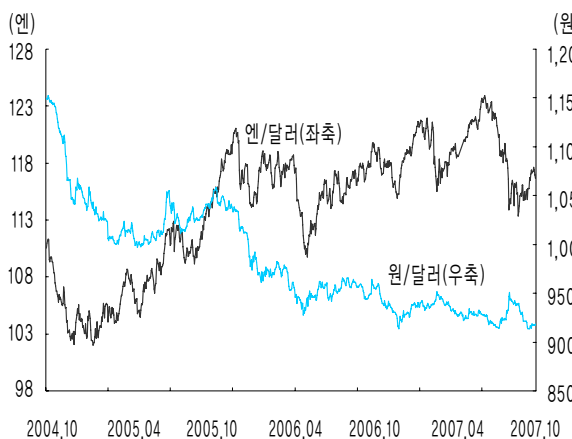


환율 원/달러, 원/엔 모두 완만한 하락세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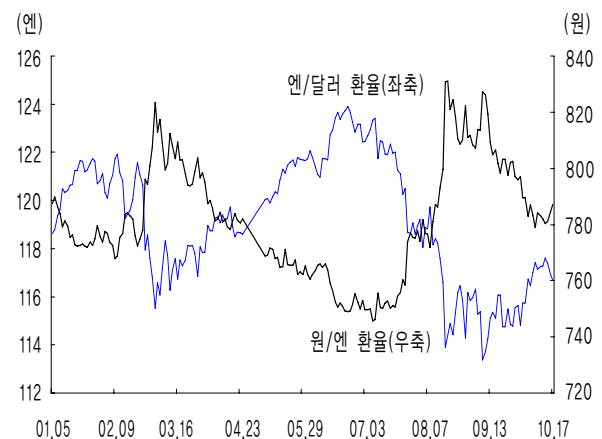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금리인하 후 진행된 달러화 약세로 913원대까지 하락했으나, 달러화 강세와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상승

- 달러화는 10월 초까지 연준의 금리 인하에 의한 유동성 공급효과로 약세를 보였으나, 이후 미 증시 급등으로 국제자금이 미국시장으로 유입되며 강세 시현
- 향후 원/달러 환율은 미국경제 침체 우려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913~918 원대의 완만한 하락세를 시현할 전망
 - 국내적으로는 수출 호조세 지속과 은행권의 해외채권 발행 등의 환율 하락요인과, 증시의 상승세 약화와 당국의 개입 경계 등의 상승요인 공존
- 원/엔 환율은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지연, 수상퇴임 등 정치 불안으로 엔화 강세가 제한되며 800원 주위에서 등락했으나, 이후 글로벌 증시 급등으로 엔화가 소폭 약세를 보이며 780원대로 하락
 - 엔/달러 환율은 10월 초까지 113~115엔대에 있었으나 이후 소폭 상승해 116~117엔대 등락
 - 향후 미증시의 상승세가 약해지며 엔/달러 환율이 114~116엔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엔 환율은 790~800원대로 상승할 전망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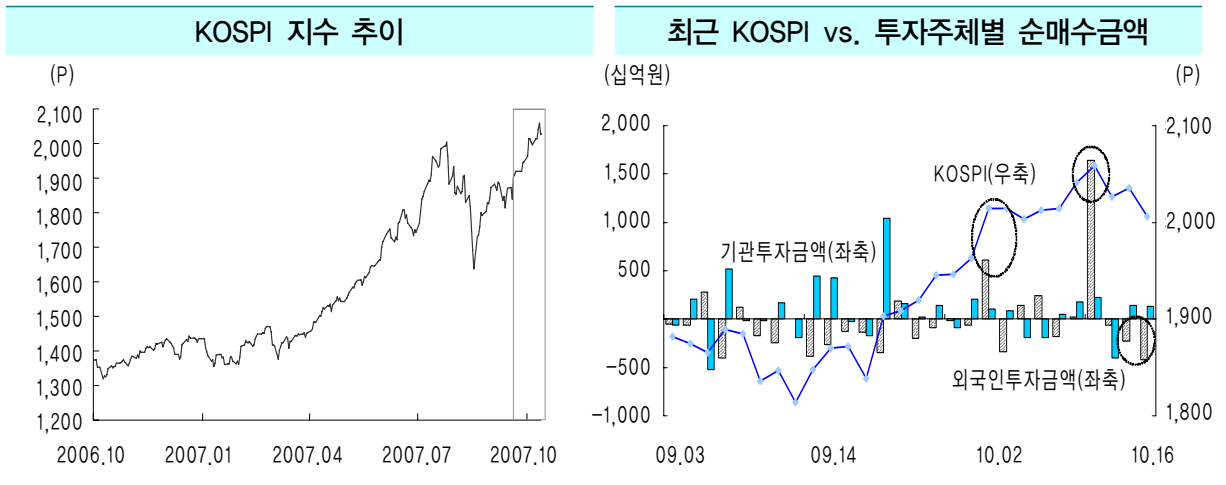
올해 원/엔 및 엔/달러 환율



주식시장 최근 급등세 후 하락

- 주가(KOSPI)는 글로벌 증시 급등, 국내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2,000선을 상회하였으나, 최근 기업실적 악화 및 유가 급등으로 미 증시가 하락하며 동반 하락세

- 최근 주가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미 증시와의 동조화 현상 심화
 -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10월 2일과 11일 각각 0.6조원과 1.7조원의 순매수로 주가급등을 이끈 후 최근에는 0.7조원의 순매도로 주가 하락을 견인(그림 참조)
- 향후 주가는 상승 모멘텀은 유지하겠으나 미국경제의 침체 우려 등으로 2,000선 내외의 등락을 보인 후, 월말 FOMC를 전후해 상승 기회를 모색할 전망
- 최근의 유가급등으로 미국 주택시장 침체 및 기업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 제기
 - 최근 NAR(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은, 올해 주택가격 하락과 기존 및 신규주택의 판매 감소세를 감안해 향후 주택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여기에 중국과 인도의 증시 과열,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어 향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



자금시장 9월중 은행 수신은 증가폭 확대, 자산운용사 수신은 증가폭 축소

- 9월중 은행 수신은 증가폭이 확대(8월 4.3조원 → 9월 6.5조원)된 반면, 자산운용사 수신은 증가폭 축소(8월 4.0조원 → 9월 3.3조원)
- 9월중 은행 수신은 추석 상여금 지급을 위한 법인 등의 자금 인출로 정기예금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월말 휴일로 인한 결제 이월 등으로 수시입출식예금(요구불예금 포함)이 대폭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증가폭 확대

은행 및 자산운용사 수신 추이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05		2006		2007				07.9월말 잔액
	1~9월	1~9월	8월	9월	1~9월	7월	8월	9월	
은행 수신	29.9	51.9	7.0	14.6	36.4	-8.3	4.3	6.5	796.2
(수시입출식 ¹⁾)	14.2	3.1	-3.7	11.7	-17.5	-7.5	-2.6	5.1	221.5
- MMDA	9.0	-0.3	-1.7	0.4	-3.7	-4.0	2.1	-1.4	64.3
(정기예금)	-0.4	18.5	4.4	3.2	6.1	-3.6	-0.1	-2.4	269.0
(단기시장성)	21.2	7.6	4.2	-1.2	28.0	1.9	5.2	0.1	127.9
- CD	16.2	2.2	2.6	-0.6	22.0	2.1	4.8	1.1	88.9
(은행채)	-2.2	27.9	2.8	0.9	23.5	1.3	2.4	3.8	131.8
자산운용사 수신	9.9	20.5	-1.8	4.0	34.9	3.9	4.0	3.3	269.5
MMF	8.1	-12.4	-3.1	-0.7	-6.2	-4.0	-2.8	-0.4	51.0
주식형	8.7	17.5	1.3	1.1	37.5	11.0	6.0	3.3	84.0
채권형	-19.8	-1.6	-0.9	1.5	-4.1	-0.3	0.3	-0.4	46.3
혼합형	4.0	6.9	-0.2	1.2	-6.5	-1.9	-0.1	0.3	41.5
신종펀드	8.8	10.2	1.2	1.0	14.3	-0.8	0.7	0.4	46.8

□ 9월 중 중소기업대출은 추석자금수요,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등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0.3조원 증가에 그치고, 여타 대출도 추석상여금지급 등의 영향으로 0.6조원 증가에 그쳐 신장세가 크게 둔화

○ 중소기업대출 증가폭: 8월 3.9조원 → 9월 7.8조원

○ 가계대출 증가폭: 8월 3.4조원 → 9월 0.9조원

기업 및 가계대출 동향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05		2006		2007			07.9월말 잔액
	1~9월	1~9월	9월	1~9월	8월	9월		
은행원화대출 ¹⁾	11.1	30.7	5.7	58.2	4.8	9.6	375.8	
(대 기업)	2.7	-1.8	-0.2	5.9	0.8	1.8	33.3	
(중소기업)	8.4	32.5	5.9	52.3	3.9	7.8	342.5	
가계대출 ¹⁾	23.3	26.2	3.4	10.8	3.4	0.9	356.5	
(주택담보대출)	16.3	16.7	2.6	1.8	0.6	0.3	218.8	
(마이니스통장대출 등)	7.3	9.6	0.9	8.9	2.8	0.6	135.9	

주 : 1) 은행신탁 포함, 산업은행 제외, 2) 신탁포함,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 이 | 슈 | 분 | 석 |

2008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세계경제 2008년 성장세 올해보다 둔화

- 2008년 세계경제는 올해보다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투자가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할 전망
 - 세계경제 성장률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경기의 둔화로 인해 올해(5.2%)보다 다소 둔화된 4.8%를 기록할 전망
 - BRICS 등 개발도상국의 견조한 성장세 덕분에 내년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제한적이겠지만, 향후 하방 리스크는 점차 높아질 가능성
 - 당분간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 중심, 소비보다는 투자 중심으로 선진국의 소비 부진을 개발도상국의 투자 증가가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될 전망
- 미국 서브프라임 쇼크는 최근 수년간 세계경제의 유례없는 고성장 국면을 지탱해 온 선순환 과정에 균열이 발생했음을 의미
 - 세계경제는 개발도상국의 대규모 투자와 생산 및 수출, 선진국의 소비에 기반하여 2003년 이후 최근까지 평균 5% 이상의 유례없이 높은 성장세를 시현
 - 글로벌 유동성의 과잉, 저금리와 자산가격 급등, 선진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개발도상국의 투자과열 등은 수년간 지속된 세계경제의 고성장 구조로부터 파생된 문제
 - 서브프라임 쇼크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위축 및 소비 둔화를 통해 글로벌 수요기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수년간 이어진 세계경제의 초호황 국면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
 - 정부와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현재 금융불안은 소강국면으로 진입했으나, 근본적 문제인 미국 주택경기 조정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금융 불안도 지속될 전망
 - 선진국의 소비 위축은 중장기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수출둔화 및 글로벌 수요기반 약화로 귀결될 가능성

2008년 세계경제 전망

	2005	2006	2007	2008		2005	2006	2007	2008
세계	4.9	5.5	5.2	4.8	러시아	6.4	6.7	7.0	6.5
미국	3.1	2.9	1.9	1.7	중남미	4.6	5.5	5.0	4.3
중국	10.4	11.1	11.5	10.0	인도	9.0	9.7	8.9	8.4
일본	1.9	2.2	2.0	1.7	중동	5.4	5.6	5.9	5.9
유로	1.5	2.8	2.5	2.1	아세안4	5.1	5.4	5.6	5.6

주 : IMF와 Consensus Forecasts 전망치 참조. 아세안4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 미국경제는 주택경기 둔화가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며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금융불안 우려도 내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전망

 -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주택시장 불황 → 고용감소 → 소비위축 → 내수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달러화 약세 및 주요 개발도상국의 견조한 성장에 따른 수출증가로 경상수지 적자폭이 축소되면서 주택경기 부진의 영향을 일부 상쇄할 전망
 - 금융불안과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와 원자재가격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급격한 금리인하 가능성은 제한적
 -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금리 재조정이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3/4분기까지 집중되어 있어, 연체율 증가와 주택 차압 등 모기지 부실 우려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전망

- 중국경제는 정부의 긴축기조 유지 및 미국경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성장을 지속

 - 투자증가세는 소폭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소비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10%대의 고성장 기조는 유지될 전망
 - 2008년 8월 북경 올림픽 이후 투자위축과 주가하락에 따른 소비둔화, 금융 부실 등 중국경제의 잠재적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나, 풍부한 외환보유고와 공기업의 투자여력 등은 경기둔화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
 - 향후 對EU, 對개발도상국 수출호조세 지속여부,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내수시장의 안정적 확대 가능성 등이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의 주요변수로 작용할 전망

□ 일본 및 유럽경제는 미국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

- 일본경제는 미국경기 하강에 따른 수출 부진과 IT분야의 재고조정 등으로 올해보다 성장세가 소폭 둔화될 전망
 -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서브프라임 쇼크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금리인상이 늦추어질 것으로 전망
- 유로경제는 미국 금융시장 불안의 영향과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 되겠으며, 특히 영국은 미국과의 금융연관 정도가 높아 금융불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

□ 인도와 러시아경제는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인도경제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정책당국의 긴축기조로 내구재 소비와 투자는 다소 위축될 전망이나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균형성장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8%대 고성장 전망
- 러시아경제는 에너지 수출대금 유입에 따른 소매/건설업 등 내수산업의 호황으로 6%대 성장세 지속 전망

유가 2008년에도 고유가 지속 전망

□ 국제유가(Dubai 기준)는 올해 하반기 유가 급등세의 원인으로 작용한 수급불안이 내년에도 지속되면서 고유가 상황도 계속될 전망

- 석유공급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 및 개발도상국의 수요 증가로 일평균 약 2만 배럴의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등 내년에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전망
- 2008년 연평균 유가는 올해보다 약 5달러 정도 상승할 전망
 - 연평균 유가(\$/bbl) : 64.4('07년) → 69.2('08년)
- 그러나 내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가격 상승세는 둔화될 전망
 - 2008년 상반기 평균 : 70, 하반기 평균 : 68.4 (단위 : \$/bb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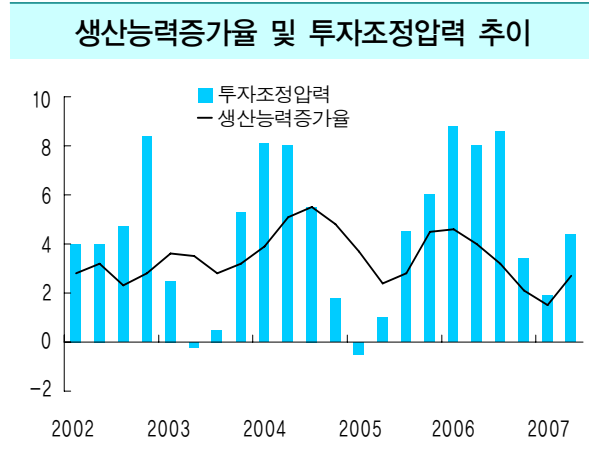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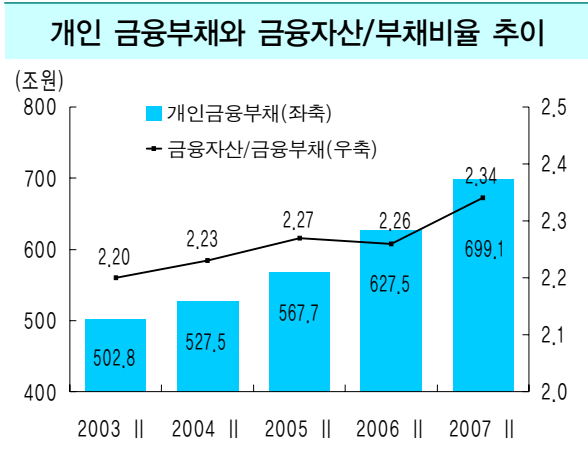
국내경제 올해보다 소폭 높은 5.1% 성장 전망

- 2008년 우리 경제는 내수의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올해(4.8%)보다 소폭 높은 5.1% 성장할 전망
 - 2008년 상반기 5.3%, 하반기 4.9%로 경기흐름은 상반기가 소폭 높은 ‘上高下低’ 형태를 보일 전망
 - 최근 수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큰 폭의 회복이나 침체 없이 4~5% 범위에서 등락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러한 흐름에 뚜렷한 변화는 없을 전망
 - 신정부 출범 이후의 공공개발사업 활성화 전망, 성장중시 정책에 따른 소비와 투자 심리의 호전 등은 내수회복에 긍정적인 효과

▮ 주요 경제지표 전망 ▮

	2006	2007			2008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5.0	4.5	5.0	4.8	5.3	4.9	5.1
민간소비	4.2	4.1	4.3	4.2	4.4	4.5	4.4
설비투자	7.6	11.4	6.1	8.7	6.0	7.2	6.6
건설투자	-0.4	3.5	1.1	2.2	4.8	5.8	5.4
상품수출(통관기준)	14.4	14.4	13.1	13.7	11.7	11.6	11.6
상품수입(통관기준)	18.4	13.8	15.7	14.8	14.4	14.7	14.6
실업률(계절조정)	3.4	3.3	3.3	3.3	3.2	3.1	3.1
소비자물가	2.2	2.2	2.7	2.4	2.6	2.8	2.7

- 민간소비는 가계의 구매력 개선, 신정부 효과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전망
 - 건설업 및 서비스업 회복에 따른 고용사정 개선 등으로 가계 구매력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신정부 출범 이후의 건설경기 회복이 소비증가에 기여할 전망
 - 경기양극화 지속, 고용의 불안정성, 금융시장 불안 등은 본격적인 소비증가의 걸림돌로 작용
 - 가계부채 급증으로 소비회복에 부담이 되고 있으나, 동시에 가계의 금융자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실 재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주 : 투자조정압력 = 산업생산증가율 - 생산능력증가율

□ 2008년 설비투자는 올해보다 둔화되겠지만, 6~7%대의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올해 상반기 금융권의 ATM 교체, 반도체장비 투자 등의 일시적 요인으로 설비투자가 호조세(11.4%)를 보였으나, 하반기들어 다소 둔화 조짐
- 최근의 높은 설비가동률(80% 초반), 투자조정압력의 개선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설비투자는 6~7%대의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다만 금융불안과 세계경제의 둔화, 올해 상반기의 일시적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등은 내년 설비투자 증가세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008년 건설투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본격 시행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올해 상반기 건설투자는 공공건설의 호조(14.4%)에도 불구하고 민간주택건설의 부진(1.7%)이 지속되면서 회복세가 점차 둔화
- 내년 정부 주도의 지역균형개발사업(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토목부문 중심으로 건설투자 회복 전망
- 민간부문 건설은 재건축관련 규제와 분양가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규제완화에 힘입어 점진적 회복 가능성

□ 2008년 수출은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소폭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시장별로 차별화될 전망

- 2008년 수출은 4,132억 달러를 기록하여 올해의 13.7%에서 11.5%로 둔화될 전망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기둔화로 글로벌 수요가 위축되면서 우리 수출도 둔화되겠지만, 중국과 아세안 등에 대한 수출비중이 확대되며 수출시장 다변화 추세는 지속
-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휴대폰 등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출둔화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중국 등의 개도국을 대상으로 투자용 자본재(일반기계, 철강 등)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호조세를 보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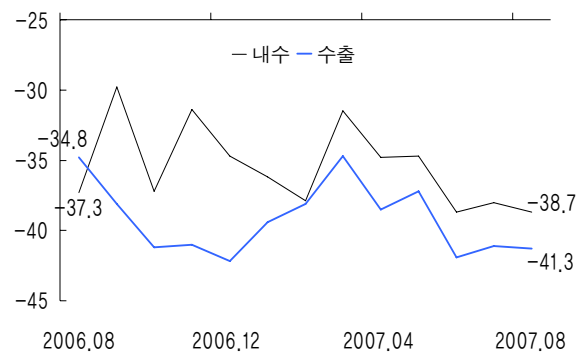
2008년 중소기업경기는 올해보다 소폭 개선

- 향후 중소기업경기는 점진적인 상승기조를 지속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증가율도 소폭 개선될 전망
 - 중소기업경기는 경제성장률과 동행하는 경향이 있어 성장률 개선에 따라 중소기업경기도 점진적인 상승기조를 지속할 전망
 - 중소기업의 연간 생산증가율은 2007년의 2.1%에 이어 2008년에는 소폭 개선된 2.3%를 기록할 전망
 - 수출호조와 내수회복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경기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전통내수산업의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경기의 개선 폭도 제한적

중소제조업 생산증가율 추이와 전망



중소제조업 수익성지표 추이: 내수 vs.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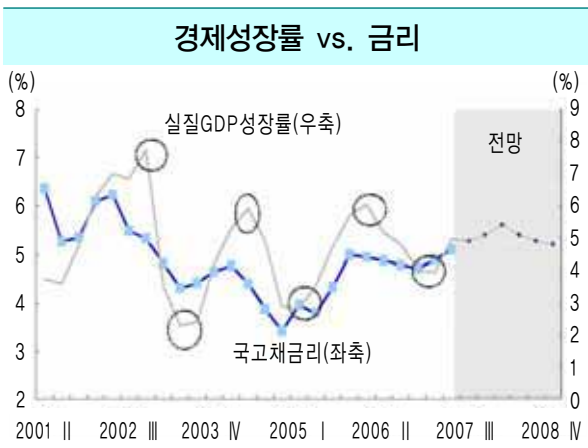
주 : 1. 좌측 그림에서 2007년 3/4분기 이후의 생산증가율은 기은경제연구소 전망치
 2. 우측 그림은 '수익성높음-수익성낮음' 차를 표시한 것으로 값이 작을수록 수익성이 악화됨을 의미

- 2008년 내수회복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 가능성은 제한적

-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안좋은 가운데, 최근 원화 강세로 인해 수출기업의 수익성이 내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추세
 - 내수기업의 ‘수익성높음-낮음’ 差: (’06.8)-37.3 → (’07.8)-38.7 (1.4%p 악화)
 - 수출기업의 ‘수익성높음-낮음’ 差: (’06.8)-37.3 → (’07.8)-38.7 (6.5%p 악화)
- 내년 수출호조세 지속, 내수의 완만한 회복 등은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 요인이지만, 반면 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금리상승 등은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금리 상고하저(上高下低) 전망

- 우리 경제의 성장세와 물가상승 압력, 콜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내년 금리는 상반기에 상승한 후 하반기에 다소 하락할 전망
 - 최근까지도 초과유동성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성장세가 예상대로 유지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 한은의 추가적 금리인상도 가능
 - 금리가 경제성장률에 매우 긴밀하게 연계됨을 감안할 때, 내년 금리는 올해 보다 소폭 상승할 전망 (국고채 3년 기준 : ’07년 5.2% → ’08년 5.6%)
 - 내년에는 하반기에 비해 상반기 경기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리는 상고하저의 형태를 보일 전망 (’08년 상반기 5.7% → ’08년 하반기 5.4%)
 - 또한 내년에는 금리 급등요인(유가 및 중국발 인플레이션 등)과 급락요인(미국 및 중국 경제의 하강 위험 등)이 공존하고 있어 금리의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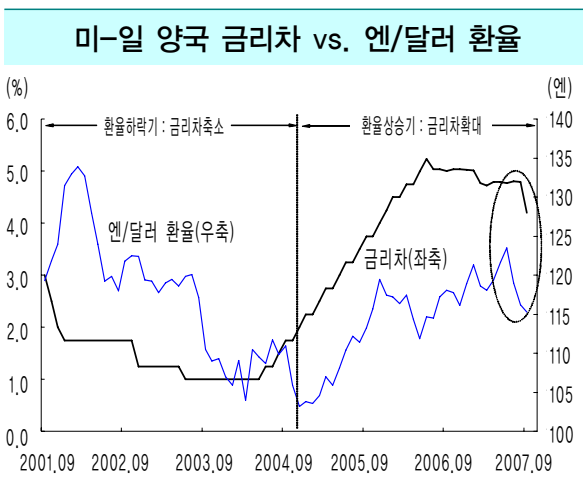


금리 전망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금고 (국고채3년)
2007. 상반기	4.5	2.2	5.0
2007. 하반기	5.0	2.7	5.4
2007. 연간	4.8	2.4	5.2
2008. 상반기	5.3	2.6	5.7
2008. 하반기	4.9	2.8	5.4
2008. 연간	5.1	2.7	5.6

환율 원/달러 환율은 완만한 하락 후 상승, 원/엔 환율은 상승 후 하락 전망

- 내년 원/달러 환율은 내년 상반기에는 달러화의 약세가 지속되며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하반기에 소폭 상승할 전망
 - 향후 미 연준은 금리인하의 가능성이 높은 반면, ECB와 BOJ는 내년 상반기 중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어 글로벌 달러 약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 전망
 - 내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 기조 속에 910원(평균 기준)까지 내려가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전망
 - 내년에 세계경제의 성장 및 교역량 증가에 힘입어 올해 환율하락을 주도했던 조선업과 중공업의 호황도 지속될 전망
 - 그러나 하반기에는 경제의 성장세가 다소 약해지는 가운데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 상반기 하락에 따른 조정으로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할 전망
- 2008년 원/엔 환율은 상반기에 상승한 후 하반기에는 소폭 하락세로 전환할 전망
 - 내년 상반기에는 엔화 강세로 인해 원/달러 환율보다 원/엔 환율이 보다 빠르게 하락하며 원/엔 환율이 상승할 전망
 - 엔화는 일본경제에 비한 미국 경제의 상대적 저성장, 미-일간 금리차 축소로 인한 달러화 자산에 대한 엔 캐리트레이드 청산 진전 등으로 강세를 보일 전망
 - 하반기에는 상반기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타나며 원/엔 환율이 다소 하락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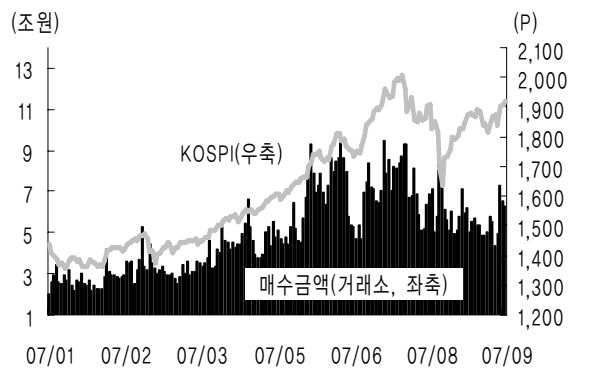
환율 전망

	원/달러	엔/달러(원/엔)
2007. 상반기	934	120(778)
2007. 하반기	917	116(791)
2007. 연간	921	118(781)
2008. 상반기	910	111(820)
2008. 하반기	914	114(802)
2008. 연간	912	113(8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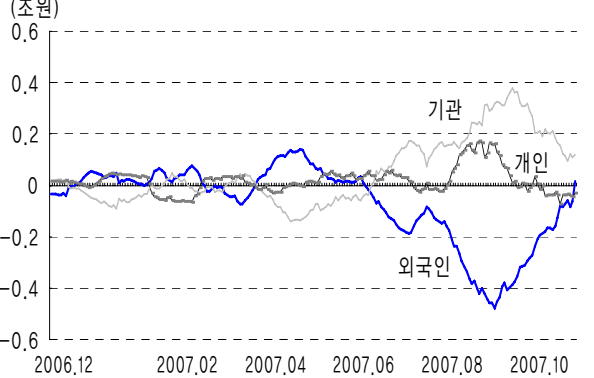
주가 내년 주가는 제한된 상승세를 나타낼 전망

- 내년 주가는 세계경제의 성장세와 풍부한 유동성 등 우호적 여건에 힘입어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나 미국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은 상승세를 제한하는 요인
 - 중국 등 신흥시장의 투자(investment) 붐과 IT 산업의 회복가능성,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공급 등은 대외적 상승요인
 - 또한 국내적으로는 국내 투자자의 주식선호, 신흥시장 투자확대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세 등이 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최근 주가지수와 거래대금



투자주체별 매수동향(순매수)



내용문의 : 기은경제연구소 경제분석팀(729-6685)

주요 경제지표

		2005년	2006년	2007년		2007년		
				1/4분기	2/4분기	7월	8월	9월
성장	GDP(%)	4.2	5.0	4.0	5.0			
경기	동행지수순환변동치	99.4	100.2	100.6	100.6	101.4	101.7	
	선행지수전년동월비(%)	4.1	5.3	4.8	5.3	6.0	6.4	
산업활동	산업생산(%)	6.3	10.1	3.4	7.1	14.3	11.2	
	생산자제품출하(%)	5.6	7.8	4.4	7.1	14.9	8.7	
	생산자제품재고(%)	2.4	6.2	6.0	3.8	3.1	5.8	
	제조업평균가동률(%)	79.7	81.1	81.6	82.8	83.1	83.7	
	제조업BSI(실적치)	80	83	81	86	87	85	86
소비	소비재판매(%)	4.1	4.7	7.1	5.2	9.8	7.1	
	소비자평가지수	82.2	82.5	81.6	89.1	91.4	91.4	92.0
	소비자기대지수	100.2	97.8	97.3	100.9	102.6	103.0	103.2
투자	설비투자추계(%)	6.3	7.4	11.3	12.1	1.0	1.7	
	기계수주(%)	5.7	18.8	15.3	6.8	30.2	4.7	
	건설기성액(%)	4.1	3.7	6.5	4.8	12.3	5.5	
	건설수주액(%)	7.3	9.0	26.3	26.3	-14.9	13.4	
고용	실업률(%)	3.7	3.5	3.6	3.2	3.2	3.1	
	취업자증가율(%)	1.3	1.3	1.2	1.2	1.3	1.3	
서비스업	서비스업활동(%)	3.6	5.2	5.6	6.2	9.9	7.3	
물가	소비자물가(%)	2.8	2.2	2.1	2.4	2.5	2.0	2.3
	(전월비)			0.9	0.1	0.4	0.1	0.6
	생산자물가(%)	2.1	2.3	1.8	2.5	1.4	1.7	2.1
	(전월비)			0.2	0.6	0.2	0.1	0.8
	전국주택가격(%)	0.8	6.2	12.0	9.9	9.4	9.3	9.1
	서울아파트매매(%)	3.6	13.6	23.8	16.4	16.2	16.2	15.7
국제수지	경상수지(억달러)	149.8	61.0	-16.6	2.3	15.2	6.1	
	수출증가율(%)	12.0	14.6	14.6	14.4	17.3	14.0	
	수입증가율(%)	16.4	18.4	13.3	41.3	14.3	9.8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5년	2006년	2007년		2007년		
			1/4분기	2/4분기	7월	8월	9월
중소제조업 산업생산(전체,%)	1.9	1.2	1.6	1.9	2.7	2.8	
(중화학공업,%)	3.3	2.9	3.0	2.9	3.7	3.5	
(경공업,%)	-1.3	-2.6	-1.6	0.3	0.6	1.0	
설비가동률(전체,%)	70.3	72.1	70.3	70.7	69.3	68.9	
(소기업,%)	69.1	71.1	69.2	69.7	68.4	68.1	
(영세기업,%)	63.7	65.7	65.1	65.7	64.2	63.6	
(중기업,%)	76.6	78.2	77.7	77.4	75.8	75.0	
설비투자실시업체(전체,%)	15.1	16.6	17.5	17.8	16.6	16.6	
(소기업,%)	12.7	14.3	15.7	15.1	14.1	14.6	
(영세기업,%)	8.0	8.9	9.9	9.93	10.6	8.7	
(중기업,%)	27.2	30.6	30.1	35.6	33.7	31.3	
자금사정악화업체(전체,%)	32.5	35.3	37.3	38.6	38.0	39.3	
(소기업,%)	35.8	37.9	39.7	39.6	40.0	41.5	
(영세기업,%)	44.7	45.5	45.5	45.7	46.6	47.6	
(중기업,%)	17.0	19.3	20.7	21.8	24.2	23.3	
중소제조업고용(증가,%)	12.8	12.9	11.6	10.6	9.1	10.4	
(감소,%)	15.5	14.3	12.7	14.1	13.1	12.0	
(증감차)	-2.7	-1.4	-1.0	-3.4	-4.0	-1.6	
수출증가율(%)	1.9	13.1	20.5	14.7	24.9	21.5	
어음부도율(%)	0.04	0.02	0.02	0.02	0.02	0.02	
BSI 실적(기준=100)	98	84	76	89	(3/4)80		
전망(기준=100)	101	106	92	116	(3/4)103, (4/4)112		
신설법인(월평균,개)	4,382	4,209	4,780	4,604	4,596	4,298	
부도법인(월평균,개)	183	136	121	119	142	124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5년	2006년	2007년		2007년		
				1/4분기	2/4분기	7월	8월	9월
자금시장*	총예금(은행)	3.0	3.2	3.8	7.4	-8.3	4.3	6.5
	(자산운용사)	1.4	2.5	7.3	5.4	3.9	4.0	3.3
	가계대출(총액)	2.4	3.4	2.4	2.3	1.8	3.4	0.9
	(주택담보대출)	1.7	2.2	1.2	-0.1	0.1	0.6	0.3
	기업대출(총액)	1.2	3.5	14.3	8.6	3.8	4.8	9.6
	(대기업)	0.3	-0.1	0.0	0.0	0.6	0.8	1.8
	(중소기업)	0.9	3.6	14.3	7.7	3.1	3.9	7.8
금리	콜금리(연%)	3.3	4.2	4.6	4.6	4.7	4.9	5.0
	국고채3년(연%)	4.3	4.8	4.9	5.1	5.4	5.3	5.4
	회사채3년(AA-, 연%)	4.7	5.2	5.3	5.5	5.8	5.7	5.8
환율	원/달러	1,023.8	954.8	939.1	927.3	918.4	934.7	928.8
	엔/달러	110.2	116.3	119.4	121.2	121.5	116.8	115.1
	원/엔(100엔)	930.3	820.9	786.9	765.2	756.3	800.3	807.7
	달러/유로	1.245	1.257	1.311	1.345	1.372	1.360	1.392
국제금리	미국국채10년(연%)	4.3	4.8	4.7	4.8	5.0	4.68	4.52
	일본국채10년(연%)	1.4	1.7	1.7	1.8	1.9	1.67	1.61
유가	WTI(\$/bbl)	56.5	66.1	58.1	64.9	74.0	72.4	79.6
	Brent(\$/bbl)	54.3	65.4	58.1	68.6	77.2	70.8	77.2
	Dubai(\$/bbl)	49.4	61.4	55.6	64.7	69.5	67.2	73.5
원자재	금(\$/온스)	445.6	608.0	651.9	670.5	667.0	673.6	721.2
	전기동(\$/톤)	3,508	6,675	5,959	7,577	7,869	7,398	7,598.2
	알루미늄(\$/톤)	1,899	2,592	2,746	2,809	2,790	2,579	2,449.9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단위 : 조원, 기간중 말잔 기준 증감액, 연간·분기 자료는 기간중 월평균증감액



IBK 기업은행

www.ibk.co.kr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번지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

TEL : 02-729-6685

FAX : 02-729-6605